왜 세계는 중국을 '투자의 오아시스'로 주목하는가 ?

현재 세계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어 다국적 기업 경영진들은 깊은 불안에 빠져있다. 허나 중국에 시선을 돌리면 그들은 '밝은 전망'과 '고무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3월 28일 오전, 국가주석 습근평은 북경에서 국제 상공계 대표들을 접견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사업 기회가 풍부하고 시장 전망이 밝으며 정책이 안정적이고 사회가 안전하며 또한 외국 기업의 투자와 산업 발전에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40여명의 외자기업 회장, 최고경영자 및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중국을 '확실한 오아시스', '투자 및 산업 발전의 뜨거운 땅'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과의 투자 협력을 확고히 확대하고 중국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기업 명단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수년간 '공동 성장'해왔고 중국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페덱스그룹(美国联邦快递集团)은 상해에 인터컨티넨탈 허브(洲际转运中心)를 구축하고 독일 메르세데스-벤츠(梅赛德斯-奔驰)그룹은 중국 파트너와 함께 중국에 14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현지화된 제품 라인업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 사노피(赛诺菲)그룹은 약 10억유로를 투자하여 북경에 새로운 인슐린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외국 자본기업들의 움직임은 '외국 자본기업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참여자이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혁신창조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중국이 세계와 련결하고 경제 세계화에 융합하는 데서의 중요한 참여자'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회복이 부진하고 무역마찰의 '먹구름'이 뒤덮여있으며 발전의 동력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을 일으켜 국제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최근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 2025년 년차총회 기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교수 제프리 삭스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대한 실수이며 세계적인 불안정 요소라고 직언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자본은 중국을 '확실한 오아시스'와 '투자 및 산업 발전의 뜨거운 땅'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에게 확실성은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중국의 확실성은 우선 정책에서 비롯된다. 습근평 주석이 회견 시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방의 문은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며 외자 리용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인터넷, 문화 등 분야에서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의 개방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2월, 중국 최초의 외국인 독자 3급 종합병원인 천진붕서리(鹏瑞利)병원이 사용에 투입되여 중국 개방 확대의 또 다른 립증으로 되였다.

중국의 확실성은 또한 안전한 개발 환경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오래동안 정국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에서 투자하고 창업하는 것은 안심할 수 있는 일이다.

투자와 사업을 하려면 환경뿐만 아니라 시장 정황도 료해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와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전통 소비외에 중국의 써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중국 주민의 1인당 써비스 소비 비중은 약 46%에 달했다. 선진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딸라를 초과한 후에야 써비스 소비 비중이 50% 이상에 달했다. 이는 외국자본이 '중국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페덱스그룹 회장 라지 수부라마니암은 최근 중국 시장은 활력이 넘친다며 중국의 경제 전망에 확신하고 중국내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환경이 좋고 시장이 크며 발전 동력이 매우 강하다. 딥시크(DeepSeek)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우수테크놀로지의 로보트 성능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5년은 중국 과학기술혁신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친환경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산업 지원 능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의 최적의 응용장소가 될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그룹리사회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은 자신이 "중국을 좋아하는 리유중 하나가 중국의 혁신 정신 때문"이라며 "중국에는 혁신의 토양과 정책 지원이 있어 혁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국은 바이오 제조, 량자기술, 체화지능, 6G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확대하며 '인공지능+'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자본에 더 큰 발전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2024년에 열린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외국인 투자와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로선도와 시간표를 마련했으며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라는 '오아시스'와 '뜨거운 땅'에서 외국자본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고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기회를 잡는 것이며 중국을 믿는 것은 래일을 믿는 것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 국제방송

한국 '최악의 산불' 사건 용의자 립건… 혐의 부인

3월 27일 밤, 경상북도 영양군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들. / 신화넷

3월 30일, 한국 경찰은 한국 동남부 지역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조사중인 한 남성을 립건했다고 밝혔다. 성묘중 불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남성은 경찰의 혐의 제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월 22일 오전 11시 25분, 56세의 이 용의자는 경상북도 의성군 한 산비탈 묘소에서 성묘를 하던 중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된다. 강풍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불은 주변 여러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되였다.

경찰은 현재 발화 현장을 봉쇄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의 딸도 현장에 있었다. 그녀는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아버지가 묘소 우의 나무가지를 꺾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라이타로 가지를 태웠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3월 28일 오후, 경상북도 다지역 산불이 기본적으로 진화된 후 다시 불이 붙어 당국은 헬기 50대와 소방인력 1,400여명, 군인 60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고기동은 3월 30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 산불의 주요 화점이 "완전히 진화되였다."고 선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지속된 이번 산불로 30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3,000여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 영향 면적은 4만 8,000헥타르에 달하며 6,800여명이 집을 잃었다.

한국 검찰은 이번 산불이 인명 피해와 문화유산 손실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용의자가 산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한화)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신화넷

'세계공장'에서 '혁신실험실'로… 중국 시장서 립지 다지는 다국적 기업들

최근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월 23일—24일 북경 조어대 국빈관에서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CDF) 2025년 년차총회'가 열렸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는 년차총회 개막식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이 벤츠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내 장기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슬레그룹(雀巢集团) 최고경영자 로랑 프레이세는 "중국이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초대 규모 시장과 탄력적인 경제구조로 글로벌 투자자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1월 8일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의료기계및의약보건 전시구역에 마련된 화이자 부스 / 신화넷

중국은 일부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학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좋은 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2월 전자상거래 써비스업, 바이오의약 제조업, 스마트 소비재 제조업의 실제 외자 류입액은 각각 33.5%, 22.9%, 40.7% 증가했다.

애플의 CEO 팀·쿡이 북경 경산공원을 방문했고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BYD 심수본사를 찾았으며 퀄컴(高通)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샤오미(小米) 자동차공장을 둘러보았다. 다국적 기업 수장들은 중국 소비자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일본상회의 조사에 따르면 58%에 달하는 회원사가 올해 중국 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서도 답변에 응한 기업의 53%가 중국 투자 증액을 예고했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 전략 변화는 중국이 '세계공장'을 넘어 '혁신실험실'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다농그룹(法国达能集团) CEO 앙투안드 생타프리크는 "중국은 혁신의 중심이자 인재의 보고"라며 "중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닌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CDF부터 박오아시아포럼까지 다국적 기업 CEO들은 중국의 완벽한 산업 체계, 다양한 응용 씨나리오, 거대한 시장, 풍부한 인재들이 글로벌 혁신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준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딥시크', '보상교환판매'(以旧换新), 체중관리 등 키워드 역시 다국적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월드와이드 코퍼레이션(奥的斯全球公司) 회장 겸 CEO 주디 막스 오티스는 엘레베터 제품과 써비스는 중국의 대규모 설비 갱신 및 도시 업그레이드 정책에 부합된다면서 중국이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방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암웨(安利) CEO 마이클 넬슨은 "건강한 중국 전략은 기업에 엄청난 발전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미 향후 5년간 21억원의 투자 계획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신화넷

일본 인구 다시 도꾜로 '극단적 집중'

최근 일본정부가 발표한 2024년 인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도꾜도의 순류입 인구가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도꾜도의 순류입 인구는 약 7만 9,200명으로 3년 련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2020년—2021년 잠시 주춤했던 일본 인구의 도꾜 '극단적 집중' 현상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 47개 지방자치단체중 2024년 40개 지역에서 인구 순류출이 발생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같은 현상은 일본정부가 10년째 추진중인 '지방 창생'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15세—24세 청년층이 2024년 도꾜도 순류입 인구의 주를 이루었다.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는 "현재 도꾜에서의 취업 및 고등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청년과 녀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뒤집고 인구 분포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과 녀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일본정부는 인구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2014년 '지방 창생' 정책을 도입해 도꾜 권역의 인구 류입과 류출 균형을 맞추고 지방 활성화를 꾀했으며 2019년에는 '지방 창생 이주 지원 사업'을 시작해 도꾜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했다. 2024년 새 내각은 '지방 창생 2.0'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는 도꾜에로의 지나친 자원 집중을 바로잡고 지방과 대도시가 상호 련결된 발전 구도를 구축해 다양화된 국민행복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총무상 무라카미 세이이치로는 "도꾜에로의 '극단적 집중'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 희소지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록록치 않다. 일본《요미우리신문》은 "'지방 창생' 정책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도꾜 권역으로의 '극단적 집중' 추세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 인구 류출 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발전시키며 인구 과소 지역 시정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지방 활성화와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력대 정부마다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뒤받침 정책이 부족해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가나가와·사이타마·치바 지역을 포함한 도꾜 권역의 2024년 순류입 인구가 약 13만 5,000명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이 역시 3년 련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도꾜 권역으로의 인구 지속적 류입은 땅값 상승, 생활비 증가, 교통 체증, 환경오염 등 '대도시병'을 초래하고 있다. 도꾜도 지요다구에 위치한 '귀향지원쎈터'에는 전국 44개 지역의 이주 상담 창구가 집약되여있다. 일본방송협회(NHK)에 따르면 2024년 해당 쎈터의 상담 건수는 처음 전년 대비 약 2,000건 증가한 6만건을 돌파했다. 쎈터 리사장 다카하시 코우리는 "도꾜를 떠나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욕구외에도 도꾜도 주택 가격 급등이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나가노현립대학 다무라 히데루 교수는 "재난 예방 차원에서 도꾜에로의 '극단적 집중'은 일본 전체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수도권은 지진 등 재난 위협에 로출되여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정부의 '지방 창생' 정책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계의 참여를 유도해 기업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 불균형 해결책을 마련해야 지방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 인민넷

중국정부 첫 구호물자 먄마에 도착

◀ 3월 31일, 중국정부가 먄마에 제공한 첫번째 인도주의 구호물자가 먄마 양광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신화넷

4월 2일, 먄마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먄마 강진으로 인해 2,886명이 사망하고 4,639명이 부상당했으며 373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였다.

3월 31일, 중국정부가 먄마에 제공한 첫번째 긴급 인도주의 구호물자가 먄마 양광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먄마 주재 중국 대사 마가는 이번 첫번째 구호물자에는 텐트 1,200개, 담요 8천장, 구급가방 4만여개 등이 포함되였다고 밝혔다.

/ 신화넷